

2024. 2. 1.(목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3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

도시경관담당관

이관호

2133-1920

빛디자인팀장

김선국

2133-1935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: 9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www.seoullightgwanghwamun.com

서울시, 38일간 광화문 비춘 미디어파사드쇼 '서울라이트 광화문'... 189만 명 관람

- 광화문과 400m 경복궁담장 캔버스 삼아 완성도 높은 조명 쇼 연출, 작년보다 59만 명↑
- 20개국 아티스트 53명 협업해 광화문광장, 세종문화회관 외벽 등 조명으로 물들여
- 올해 말에도 개최 예정, 대학 연계·시민참여형 콘텐츠 등 세계인 모이는 전시행사로 발전
- 시, “광화문, 전통·현대, 도시·자연, 예술·기술 공존하는 세계적 미디어아트 랜드마크로 조성”

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38일간 매일 밤 서울의 랜드마크 광화문과 광화문광장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던 미디어파사드쇼 ‘서울라이트 광화문’이 국내외 관람객 189만여 명이 찾은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.

○ 전년도 130만 명에 비해 59만 명이 더 많은 인원이 몰렸으며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51,264명이 찾은 셈이다.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날은 12월 24일로 27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.

-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‘미디어파사드 쇼’, ‘조명 라이트쇼’, ‘세종문화회관 외벽 미디어갤러리’, ‘대한민국역사박물관 K-컬처 스크린’, ‘빛조형 작품’ 등 총 20개국 53명의 아티스트가 협업해 다양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세계적 수준의 빛·조명 쇼다.
- 특히 광화문과 광화문 월대를 중심으로 총 400m 길이의 경복궁 담장을 캔버스 삼아 영상과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한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최고의 콘텐츠.
 - '19년 DDP를 배경으로 시작한 미디어아트 쇼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문화재인 광화문과 경복궁 담장을 장식하는 건 처음이다.
- 미디어아트 쇼는 프랑스, 독일, 호주 등 작가들이 참여해 5분 안팎의 디지털 영상을 선보이는 방식이었는데, 특히 반응이 뜨거웠던 작품은 서울을 배경으로 도시와 산수가 어우러진 작품을 빛으로 그려낸 이이남 작가의 광화산수도였다.
- ‘서울라이트 광화문’의 관람객 만족도도 아주 높았다. 조사참여자 98.4%가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고, 98.3%는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.
- 이외에도 광화문광장 서측 육조마당에 설치된 길이 14m, 높이 4m의 대형 LED 전광판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신다다디즘 성향의 국내

외 작가 8명의 작품 영상도 상영됐다. 새로운 미래 환경과 가상 인간을 소개하는 ‘미러링 네이처’, ‘미러링 휴먼’을 보여주는 LED 미디어 큐브 34대도 육조마당에 배치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.

- 특히 이번 전시는 기성 작가들이 아닌 사회관계망(SNS)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3개국의 팔로워 310만 이상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30인의 작품을 야외 공간에서 전시해 신선하고 독특한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- 서울시는 올해 겨울에도 ‘서울라이트 광화문’을 개최할 예정이다. 서울시내 대학 및 협회 연계 전시를 비롯해 시민참여형 콘텐츠, 광화문만의 차별화된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 행사를 만들겠다고 계획이다.

-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“미디어파사드쇼 서울라이트 광화문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서울의 매력 포인트인 광화문이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할 계획”이라며 “광화문을 전통과 현대, 도시와 자연, 예술과 기술로 표현되는 6가지 서울의 매력을 살려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첨부 :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현장 사진



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



한호 - 21c 몽유도원도



권치규 - 만월



권치규 - 대전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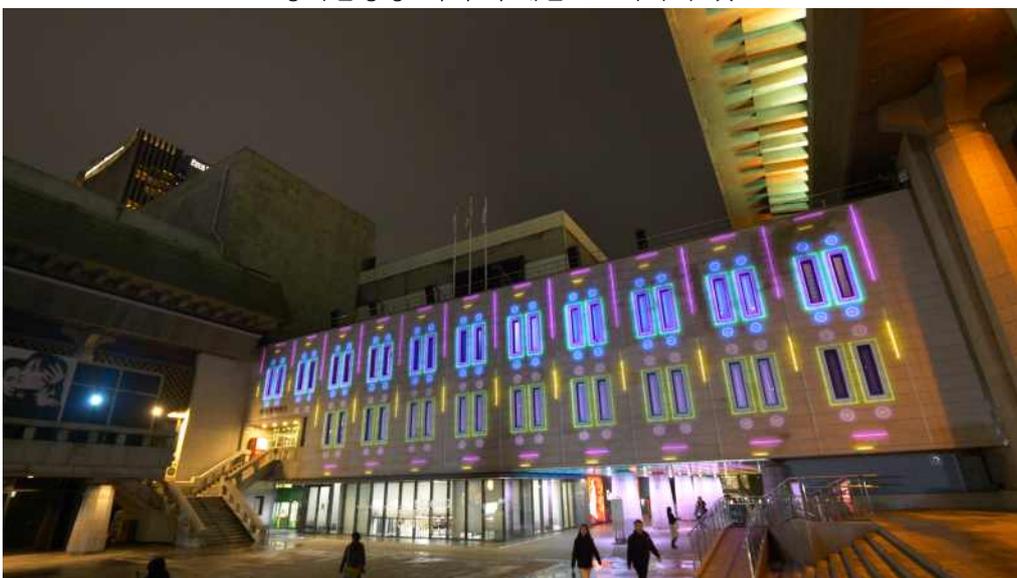
광화문광장 육조마당 - 미러링 네이처 / 미러링 휴먼



K-컬처 스크린(대한민국 역사박물관) - '디지털 추상'



광화문광장 북측 주제관 - '다다의 빛'



세종문화회관 외벽 미디어갤러리 - '드랍 더 빛'



서울라이트 광화문 - 시그니처 미디어파사드 & 조명연출



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 - 드론촬영 사진